

# 영농철 농촌인력 특별 지원대책 추진

### 도·시·군, 14일부터 인력지원 상황실 본격 가동... 농번기 일손 부족 극복 총력 농촌인력증개센터 확대 운영·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 등 중점 추진

전북도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 확보가 어려운 농촌 일손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영농철 농업인력 지원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도는 지난해, '농촌인력증개센터' 확대 운영과 '외국인계절근로자' 등을 활용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18만2천명의 인력을 지원(2021년 대비 45.2% 증가)해 농촌 일손 부족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했다.

올해에도 농촌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 부문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중점을 두고 2021년 대비 1만명이 증가한 19만명의 농촌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 ▲내국인 농촌 인력수급 활성화 지원 대책

인력이 많이 필요한 과수, 채소 등의 농작업에 대한 중점 지원을 위해 '농촌인력증개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광역단위 '전북농촌인력증개센터'도 신규로 운영한다.

우선, 농촌인력증개센터를 2021년 30

개소에서 2022년 32개소(23억원)로 확대 운영해 일손이 필요한 농가와 농작업자 간 일자리를 중개·알선하고, 농작업자에게는 추가적인 교통비, 숙박비 등을 지원한다.

또, 농번기 각 시·군의 인력 수급 상황을 파악하고, 지역에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도 단위 총괄 농촌인력증개센터(전주시니어클럽)를 신규로 운영한다.

아울러, 고령농과 여성농 등의 영농 부담 해소를 위해 시·군 농업기술센터, 지역농협 등 총 75개소의 농작업 대행기관을 활용한 두둑 만들기, 비닐 씌우기, 파종 등 농업인이 희망하는 작업을 맞춤형으로 2021년 40만ha에서 2022년 42만ha로 지원을 확대한다.

도와 14개 시·군은 물론, 자원봉사단체, 대학생, 농협 등을 중심으로 농촌봉사활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제도가 상시화(1주일 단위 고용 허용, 상한 없음)됨에 따라 허용되는 방문비자(F-1), 출국 유예 고용허가 외국인

#### ▲외국인 인력도입 활성화 지원 대책

외국인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 운영해 농촌 인력으로 적극 활용하고, 소규모 농가에 외국인근로자를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외국인계절근로자 배정은 13개 시·군 1,741명(군산2, 익산67, 정읍74, 남원50, 김제66, 완주96, 진안149, 무주29, 장수56, 임실40, 순창8, 고창645, 부안59)으로 계절근로자 도입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도는 계절근로자 제도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산재보험료, 시설관리비용(50%), 파견근로자 수송 차량 임차비 등의 예산(총 8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제도가 상시화(1주일 단위 고용 허용, 상한 없음)됨에 따라 허용되는 방문비자(F-1), 출국 유예 고용허가 외국인

(E-9) 등을 적극적으로 농업분야 인력으로 전환을 유도해 농촌 일손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 네트워크가 부족한 시·군의 경우 전북도 네트워크(우호지역 등)를 활용한 MOU 체결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협이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 일손 소규모 농가에 계절근로자를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를 2021년 무주군(무주농협)에서 2022년 상반기 2개소(무주군(무주농협) 100명, 임실군(오수관농협) 40명)로 확대 운영하며, 하반기에는 다른 시·군에도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규(2022년 공모선정)로 수용인원 50인 미만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2개소(신안, 고창) 건립(총 사업비 56억 원)도 추진한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선제적인 농촌 인력 지원 대응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고, 인력수급 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인들의 농업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시골마을 작은축제' 본격 추진

### 도, 작은축제 방향성·지속 성장 사전 컨설팅 등 '준비 박차' 생생하게 즐기고 체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키로

전북도가 추진하는 시골마을 작은축제(이하 '작은축제')가 3월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시골마을 작은축제'는 지역주민들이 마을 단위로 전통을 계승하거나, 주민회합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특색있는 소규모 축제로 시작됐다.

도는 작년 말 2022년 시골마을 작은축제 21개를 선정하고 올해 3월 작은축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축제관계자 워크숍부터 시군 사전컨설팅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도는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축제 지속가능성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축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등 지역특화형 축제 7개가 다양한 주제로 개최된다.

정보공유뿐만 아니라 객관화, 축제 준비·운영·종료 단계별 발전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라북도도는 3월11일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 축제, 시골마을 작은축제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전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는 ▲전주 서하동 갤러리길 미술축제, ▲군산 공당보리 축제, ▲익산 두동편백마을 힐링숲 축제, ▲정읍 솔타모사달빛 축제, ▲남원 혼불문화신행길 축제, ▲무주 두문마을 낙화놀이 축제 등 14개의 작은축제와 올해 처음 개최되는 ▲합라두레마당 떡볶이 문화축제, ▲순창 오장계마을 축제 등 지역특화형 축제 7개가 다양한 주제로 개최된다.

/유호상 기자

## 도, 대형산불 특별대책 진행

### 내달 17일까지 비대면 예방·홍보강화·기동단속·진화헬기 초동대응

전북도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돼 전북의 산불재난위험경보단계가 '경계' 발령됨에 따라, 오는 4월 17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강우량이 예년에 비해 최소량에 불과하고, 4월 초 청명·한식 등 입산자 증가가 예상되고, 지역적 강풍발생 등으로 대형 산불 발생 위험이 커져있고 있어 2022년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지난해보다 10여일 앞당겨 4월 17일까지 설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주요 등산로별 입산 통제, 불법소각 단속 등 산불취약지에 대해 감시인력을 집중배치하고, 계도 및 단속강화에 나서는 한편, 인화물질 사전제거 등 산불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특히, 영농시기가 도래하고, 입산자가 많아지는 시기임에 따라,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행위와 입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산불감시원, 산불 예방진화대원 등 1,418명을 산불취약

지에 전진 배치해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기동단속과, 진화헬기(임차)를 통한 공중예찰 등 입체적인 감시를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산불진화 '골든타임제' 이행제고를 위해 전북도 자체 입차헬기와 산림청 헬기의 공조를 강화해 산불이 발생하면 지상진화인력과 산불진화 헬기를 총동원해 20분 이내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초동대응 태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봄철 산불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군과 더불어 산불방지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예년에 비해 매우 건조한 탓에 올해 2월까지 도내에서는 10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전국적으로는 22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 126건 대비 1.8배에 달하며, 피해면적 100ha이상의 대형산불도 2월에만 2건이 발생하는 등 대형산불발생 우려가 높은 상태이다.

/유호상 기자



경북강원지역 산불대응 중대본회의의 주재하는 행안부장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경북·강원지역 산불대응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전북지역 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는 어디?

### 군산 선유도 옥돌해변·구불길 8코스, 장수 뜬봉샘 생태관광지 등 한국관광공사가 꼽은 25곳에 포함... 도, '야외 관광지 중심 홍보'

전북도는 2022년 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에 군산 선유도 옥돌해변(해수욕장)과 구불길 8코스, 장수 뜬봉샘 생태관광지 2곳이 한국관광공사가 꼽은 25곳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군산 선유도 옥돌해변, 구불길 8코스 및 장수 뜬봉샘 생태관광지는 코로나 19 상대적으로 안전하게 관광할 수 있는 안심관광지로 뜨고 있다.

고군산문도는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로 이뤄진 섬의 군락이자, 자연이 창조해 낸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천혜의 해상관광공원으로, 그 중심에 자리한 선유도가 있다.

선유도 해수욕장에서 도보로 10분정도 남쪽 돌레길을 따라 걷다 보면 선유구에 위치한 옥돌해변은 일반 해수욕장과는 달리 옥돌같이 고운 자갈로

구성돼 있다. 주변의 기암괴석과 옥돌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고, 선유도와 가까운 섬들은 가파른 오르막길이 없는데다 모든 길이 해안을 따라 이어져 있어 트레킹명소로 부각되고 있다.

군산 도보여행길 중 '구불길'은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어 고군산문도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해수욕장과 갯벌체험장 등이 있어 체험활동을 비롯해 서해의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길이다.

또한, 장수 금강의 발원지인 뜬봉샘 생태관광지는 금강의 첫 물줄기를 감상할 수 있으며, 뜬봉샘에 이르는 길에 다양한 자연의 소리, 운치있는 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다.

다양한 생태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 생태적 감수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생태공원내 남생이 서식지, 자작나무숲, 하늘다람쥐 비밀정원 등 각종 볼거리가 있어 넓은 자연속에서 코로나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안심하고 힐링할 수 있다.

비대면 관광지 25선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관광공사 누리집(<https://korea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동욱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사람들이 봄비는 유명 관광명소보다는 밀집도가 낮은 비대면 여행지를 찾아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준수한다면, 아름다운 봄날의 소풍을 즐기며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야외 관광지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관광 홍보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 1면에 이어... 새만금잼버리 1년 연기되나

이에, 코로나19 상황이 극복되는 등 좀 더 안정적 상황에서 전 세계 청소년이 함께하는 성공적 잼버리를 만들기 위해 내년 8월 개최 예정이었던 세계잼버리를 1년 연기, 2024년 8월 개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잼버리가 1년 연기되면,

세계잼버리의 사전 점검을 위해 올해 8월에 예정된 프레잼버리도 현재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년 연기한 2023년 8월에 개최하게 된다.

김종필 도 잼버리지원단장은 "세계스카우트연맹의 결정에 따라 연기가 확정되면, 미래의 땅 새만금에서 인류

의 희망인 청소년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회복과 희망의 성공잼버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한 계획"이라며 "새만금잼버리가 전 세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온전한 일상을 되찾았음을 알리는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